



수신	각 언론사 경제,사회부, NGO담당기자
발신	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(운영위원장 박성용,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)
문의	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(윤철한 팀장, 정택수 간사 / 02-766-5624, 010-7584-0755)
일자	2018. 8. 9.(목)
제목	[보도자료] 수입 대두 비의도적 GMO 혼입치 현황 분석결과(총 3매)

GMO 비의도적 혼입치 0.12% 불과, 3%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-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% 이하로 낮추고 NON-GMO표시 허용하라

경실련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,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.1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%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% 이내로 낮추면,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.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% 이상이어야 한다.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·수입·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.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%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.

연도별 대두 수입 건수 및 수입량

연도	수입건수	총 수입량(kg)
2015	52	198,099,964
2016	67	221,392,810
2017	58	226,637,440
계	177	646,130,214

연도별 GMO 비의도적 혼입치

연도	연평균(%)
2015	0.17
2016	0.08
2017	0.13
총 평균	0.12

출처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

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.12% 불과해

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,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.17%, 2016년 0.08%, 2017년 0.13%로 평균 0.12%이었다. 3년간 총 수입량은 646,130톤으로 미국산이 96%(621,645톤), 캐나다산이 4%(24,484톤)을 차지했다.

수입건별 비의도적 GMO 혼입치 분포 비율(단위 : 건수)

연도	0	0%~0.1%미만	0.1%~0.5%미만	0.5%~1.0%미만	1% 이상	기타	합계
2015	7	5	27	4	0	9	52
2016	26	2	34	0	0	5	67
2017	3	0	54	1	0	0	58
계(비율%)	36(20)	7(4)	115(65)	5(3)	0(0)	14(8)	177(100)

기타 : NON-GMO 증명서 대체 8건, 혼입치 미기재 6건

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, GMO 혼입치 0.1% ~ 0.5%미만이 115건으로 65%였으며, 0%도 36건으로 20%나 되었다. 반면에 1%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,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.65%에 불과했다.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.14%, 캐나다산 0.01%이다.

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.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%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,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.

〈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〉

제6조(세부실시요령 등)

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.

※ 식약처 고시 제2013-143호, 시행 2013.4.5.

NON-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

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.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.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
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-FREE,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-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오직 0%인 경우만 GMO-FREE 또는 NON-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.

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.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·뉴질랜드 수준인 1%나 EU 수준인 0.9% 이하로 낮추고,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-GMO 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,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. 끝.

■ 첨부

1.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
2.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
3.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

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

연도	미국산		캐나다산		총 건수	총 수입량(kg)
	수입건수	수입량(kg)	수입건수	수입량(kg)		
2015	49	194,090,414	3	4,009,550	52	198,099,964
2016	48	202,895,870	19	18,496,940	67	221,392,810
2017	56	224,659,590	2	1,977,850	58	226,637,440
계	153	621,645,874	24	24,484,340	177	646,130,214

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(%)

연도	미국산	캐나다산	연평균
2015	0.18	0	0.17
2016	0.1	0.01	0.08
2017	0.14	0	0.13
총평균	0.14	0.01	0.12

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

연도	선박명	원산지	수입량(kg)	혼입치(%)
2015	헬리팩스익스프레스	미국	17,953	0.41
2016	서울익스프레스	미국	1,288,292	0.34
	아폴로	미국	17,826	0.34
2017	현대하이니스1	미국	1,672,441	0.65